

스마트팜 기술 전수...청년 창업인 키운다

농림부, 특허연구소와 중소 기업 식품 노하우·기술 교육 진행
고흥 혁신밸리 보육센터 2022년 완공...스마트팜 전 과정 교육

정부가 농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지역 연구시설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자치단체 농식품 연구소는 자체 보유한 농식품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고품에 조성될 예정인 '스마트 팜' 혁신밸리 보육센터는 청년 창업가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식품 자원 특허 연구소와 협력해 '식품 노하우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식품산업의 활성화와 중소 식품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부는 지난 2004~2013년 '지자체 연구소 지원 사업'을 통해 설립된 농식품 자원 특허 연구소 10곳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구례야생화연구소, 장흥군버섯연구소, 목포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등이 있다.

올해 교육에는 배리&바이오식품연구소, 진안홍삼연구소 임실치즈&식품연구소, 하동녹차연구소가 참여한다.

농림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지난 달까지 분야별 20명씩 참가자를 모집했다. 참가자들은 유가공품, 차류, 홍삼, 배리 4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 연구소, 우수 식품기업의 현장 전문가로부터 제조·가공 실습 교육을 받는다. 또 가공공장 등 선진지를 견학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식품기업들의 기술수

요를 발굴해 지자체 농식품 연구소가 보유한 식품 기술(특허)의 이전도 추진한다. 각 분야별 전문가는 교육을 수료한 중소 식품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 상담, 제품형태 제조 기법 전수, 공정 개선 등을 펼친다.

남태현 농림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지자체 연구소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 성과를 확산해 지역 식품산업의 혁신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2년까지 고품만 간적지 29.5ha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청년농업인 육성의 거점이 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스마트 팜 청년창업 장기 보육과정' 교육생을 올해 전북·경북 지역 104명에 이어 내년까지 전남·경남지역 200명을 선발한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500명의 청년 농

업인이 육성될 계획이다.

'스마트 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은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 팜'에 취·창업할 수 있도록 작물 재배기술, 스마트기기 운용, 온실관리, 경영·마케팅 등 기초부터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을 보육하는 사업이다.

내년 착공에 오는 2022년 완공되는 고품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에서는 2020년 이론 교육·현장실습, 2021년 실증온실 입주가 차례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자는 '스마트 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과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임대 우선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성적 우수자는 '스마트 팜' 장기임대 온실(최대 5년) 우선 입주 기회를 얻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제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급변하는 시대의 창업전략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어이없는 백색국가 배제로 인해 한일 간의 경제 전선은 더 넓어지고 미국과 중국의 격화되는 무역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걸쳐서 그 여파가 조금씩 느껴지는 요즘 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두려운 것은 실제 피해범위와 규모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위축돼 기폭이나 침체된 경기가 더욱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아닐까 싶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국민들의 반일정서,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 경기의 장기 침체 등 내수경기와 직결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기에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창업을 준비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어떤 창업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일본과 관련된 부분부터 살펴보자. 현재 일본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반일을 넘어 혐일로 향하는 분위기인데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 언제 풀릴지 장담할 수 없기에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일본에서 국내로 직접 진출하거나 합작형태로 들어온 일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가맹창업은 무조건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식 창업아이템도 피하는 것을 권하고 싶고 특히 일본식 상호나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 주류나 식자재, 집기, 소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마디로 일본과 관련되거나 연상이 되는 브랜드나 창업아이템은 한동안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싶다.

다음은 전반적인 창업전략도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는 창업시기와 창업아이템 선택의 문제다. 이미 경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악재들이 터진 상황이고 딱히 호재가 안보이는 상황이기엔 창업시점은 그냥 준비해오던 타이밍에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다. 다만 창업아이템 선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을 하려는 상황이라면 기존 가맹점들의 현재 매출을 분석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강한 브랜드 위주로 가맹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 독립창업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아이템의 차별화만이 경쟁력의 원천임을 잊지 말고 기존 아이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차별화나 틈새시장 공략형 차별화 아이템으로 차별화 지점을 찾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창업비용의 절감에 관한 문제다. 가맹비, 시설비, 집기비용, 권리금 등이 대표적으로 창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들이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절감대책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는 고정비용의 절감에 관한 부분이다. 고정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인건비에 대한 대책은 특히 필요하다. 그 대책은 1인 창업이나 부부창업 등 최소의 인원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을 선택하거나 직원이 추가로 필요한 업종을 선택하더라도 반제품형 식자재 사용, 서비스 동선의 조정, 셀프서비스의 활용 등을 통한 인원절감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매장의 규모에 대한 부분이다. 아이템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창업비용과 인건비의 부담이 큰 중대형화 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소형화 또는 중소형화 중심의 창업을 권하고 싶다.

다섯 번째는 배달시장의 경쟁력과 홍보 부분이다. 갈수록 커지는 배달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있는 메뉴나 제품을 보유해야 매장운영에 도움이 되며 홍보전쟁 시대인 만큼 예비창업자도 홍보마케팅에 대한 최소한의 노하우를 확보한 이후에 창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상의 변화에는 쫓지 말자. 진짜 경계해야 할 무서운 것은 내가 제때 변하지 못해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특강

청년창업가 대상 실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는 6일 호남지역 청년창업가 130여명을 대상으로 '꿈과 도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과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더불어민주당)이 강사로 나서 자신의 도전과 실패, 성공 스토리를 청년CEO들과 함께 나눴다.

이 이사장은 셀러리맨으로 시작해 이스타항공을 창업, 대기업 항공시장 독점을 꾀 경험을 전달했다. 송 의원은 청년창업 활성화와 공공경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9기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3월 예비 청년창업가 65명이 입교해 사업계획 수립, 사업화 등 창업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



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호남지역 청년창업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특별강연이 열렸다. <중진공 제공>

KISA,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중소·창업기업 지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다음 달 14일까지 중소·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황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중소·스타트업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가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중소·스타트업 50개사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기업들이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북구, 예비 사회적기업 10곳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약정 맺어

광주시 북구가 올해 예비 사회적기업 10곳을 키운다.

북구는 최근 예비 사회적기업 10곳과 '2019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약정을 맺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6일 밝혔다.

이번 약정체결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차 사업에는 재심사를 통해 선정된 8곳

과 신규 2곳 등 총 10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이달부터 1년 동안 근로자 78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기업운영 연차 비율에 따라 지원받는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원비율은 1년차에는 70%, 2년차에는 60%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6억여 원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참여 기업은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 50%이상 의무고용 ▲표준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복무관리 및 목표매출액 달성 등의 의무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할 예정이다.

북구는 정기적으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회계처리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 공시제를 강화하고 사회적기업제품 판매장터와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도 열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 소 | 순천시 중앙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